

- 1. 활력있고
1. 안전하고
1. 깨끗하고
1. 편리하고
- 1. 문화가
1. 자연이
1. 사람이
1. 기업이
- 1. 역량이
1. 자원이
1. 인력이
1. 자본이
- 1. 경쟁력
1. 생산성
1. 혁신성
1. 성장성



김수영 시장 주민과의 대화로 열린행정 추진

읍면동 방문해 주민 애로사항 317건 청취



김수영 시장은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1월 9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동서동을 시작으로 읍면동들을 순회하였다.

시정전반에 대한 중점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앞으로 현안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주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후

시장에 반영하기 위한 열린행정 추진으로 참여한 주민들은 좋은 반응을 보였다.

현장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현안사업은 총317건으로 앞으로 현장확인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들과 시장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여 도출된 문

제점을 시장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지표인 "함께하는 시민 살기 좋은 사천"을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1세기 시 발전의 전망과 계획을 시장과 시민, 민간단체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함으로써, 탁상행정 등 행정편의주의를 탈피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사천관광을 위한 당부 말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시는 12만 시민 여러분의 애김없는 성원으로 항공우주산업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의 발전을 착실하게 다지는 등 시정 전반에 많은 변화와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관광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남일대유원지 개발사업과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을 비롯한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 또한 중요하기에 함께하는 시민 살기좋은 사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사항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우리 시민 모두는**
- 항상 웃는 얼굴로 내 가족을 대하듯이 정성을 담아 손님을 맞이합니다.
 - 관광객을 위하여 친절함 안내와 자리를 양보합니다.
- 식품접객업주와 종사원께서는**
- 손님을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위생상태를 항상 청결히 합니다.
 - 가격표를 비치하고 규정 요금을 받습니다.
 - 손님에게는 항상 친절함과 서비스를 다합니다.
- 숙박업소에서는**
- 객실, 침구, 욕실 등은 항상 청결히 하고 위생관리를 준수합니다.
 - 손님에게는 항상 친절하고 상냥함을 잊지 않습니다.
 - 성수기 이유로 과도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사천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 만복이 깃들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천 시 장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제5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한국도로교통협회와 건설교통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대상으로 선정한 창선·삼천포 대교가 마라톤 코스로 달림이들을 찾아가다.

오는 3월 4일(일) 오전 9시 30분에 삼천포 대교공원을 출발하여 삼천포항과 남해군을 잇는 환상적인 코스에서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제5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

사천시와 남해군이 공동 주최하고 사천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하프, 10km, 5km코

스로 한려수도의 비경과 창선·삼천포 대교의 환상적인 코스를 마음껏 달리며 짜릿한 기분을 가족, 동료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림이들의 구미를 당기게 한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제5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자신의 기량 및 페이스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 동호인들도 이번 대회 개최를 환영하고 있다.

또한, 대회 코스인 '창선·삼천포대교'는 한국도로교통협회와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 대상 수상에 빛

MBC드라마 "환상의 커플"의 촬영지로 달림이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경남 사천-삼천포항-남해를 잇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사천시체육회에서는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제5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참가자들에게 완주 메달과 함께 HUMMEL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기능성 긴팔 티셔츠를 기념품으로 증정할 계획 이다.

신청사 진입로 공사 개시, 5월 개청

지난 1995년 도·농 통합시 출범 이후 옛 삼천포시와 사천군 양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화합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으며, 2004년 9월 사업비 434억을 투입하여 용현면 덕곡리 424-2번지 일대 69,432㎡(21,003평)상에 건물면적 18,491㎡(5,593평), 지상 8층 규모의 통합신청사 건축공사에 들어가 현재 마무리 단계다.

시는 당초 신청사 건립시점에서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있는 신청사 진입로 보상을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12월말까지 신청사 입주를 계획했으나, 편입 토 소유자들의 보상

금 수령반발로 진입로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계속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진입로 공사가 차질을 빚은 것은 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지난해 6월부터 택지개발 편입 토 소유자 324명을 대상으로 보상에 들어갔으나 219명이 협의보상에 응하고 나머지 105명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이 책정 때 감정결과가 현실거래가 위주의 금액으로 책정되지 않고 공시지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이 돈으로는 편입토지 밖 토지 가격의 절반 정도밖에 구입할 수가 없기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19,771㎡(5,980평)에 길이 250m, 너비 35m, 왕복 4차로로 개설 예정인 신청사 진입로 공사를 위해 지난해 8월 진입로 편입 토 25필지, 지장물 31건에 대한 재감정과 함께 중앙토지중요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공사측의 재결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23일 토지수용심의위원회 시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토지공사는 미협의를 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법원공탁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소 유권이전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진입로 부지가 토지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시는 조속한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토지공사로부터 진입로 개설사업비 20여억원을 이전받아 직접 집행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협약을 토지공사와 체결하였으며, 사업자가 선정되는데로 곧 착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약은 간접적으로 시 예산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와 같다.

이렇게 신청사 진입로 공사의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공정 96%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던 신청사 공사도 2월중 재개하여 3월까지 완료하고, 4월경 시운전 등 전체적인 공사를 마무리한 후, 5월경 개청 예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젊은층 유입 취학아동 증가 공단 기업체 근로자 유입, 인재육성시책 등 효과 나타나

그동안 매년 감소해오던 인구가 공단 근로자 유입, 인재육성시책 추진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시 관내 초등학교 취학 아동도 2007학년도에 들어서면서 270명이 증가하였다.

사천교육청에 따르면 2007학년도 취학 대상 아동이 지난해 1364명보다 270명이 늘어난 1634명이며, 동지역은 137명이, 읍면지역은 154명이 증가했고 일부지역의 학교는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3학급이 증설된다.

이번 취학 아동 증가는 선구동 소재 삼천포초등학교 69명, 향촌동 소재 용산초등학교 45명, 사남면 소재 삼성초등학교 78명, 정동초등학교 20명 등 시 읍면동 전지역에 걸쳐 증가세가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천시는 지난 95년 통

합 이후 공단이 있는 읍면 지역은 인구가 소폭 증가했지만 농촌지역과 동지역 인구는 감소하여 취학 아동도 동반 하락에 들어간 2000년 1640명, 2003년에는 1489명, 2005년 1429명으로 계속 감소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 중 취학 아동 학부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인 30~40대가 2005년 3만5154명에서 2006년도에는 3만5719명으로 565명이 증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매년 감소하던 취학 아동이 증가한 것은 진사지방산업단지와 외국인전용단지에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한국경남태양유전, BAT코리아 등 국내의 기업



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5000명 이상의 외지 근로자들이 유입됐고, 시가 인구증가 및 유출방지를 위해 펼친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과 전입세대 및 3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급, 출산 장려를 위한 우대인증 발행 등의 시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완전 분양된 진사지방산업 2단지과 두량 농공단지에 기업체가 입주하고, 동지역에 추진 중인 남일대리조트와 삼호조선 등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급격한 인구증가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5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 대회 참가 접수 마감! •
2007년 2월 10일

일시 **2007. 3. 4(일) 오전 9:30**
장소 **삼천포대교 공원**
주최 **사천시, 남해군**

문의전화
사천시 체육회 055)830-4445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제5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사무국 02)723-1666

...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창선·삼천포대교! ...

복지알림방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07. 1. 15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안내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동 할인제도를 조기에 정착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 시행시기 : '07. 1. 15부터
- 신청방법
 - 관할 한전 지사·지점, 인터넷(www.kc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 + 123)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위탁계약 증명서 등 관련 근거 서류
- 적용기준 :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 할인
 - 적용 계약종별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

장애인 편의를 위한 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 추진

- 사업량 : 60여 개소
- 신청기간 : 2007. 2. 1 ~ 4. 30(2개월간)
- 신청장소 : 영업점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신청서 비치)
- 설치대상
 -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약약품 등) 등의 소매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하인 건축물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하인 건축물
 - 일반복합용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시설
 - 안마시술소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시설
- 사업추진 : 2007년 5월중 시에서 추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안내

- 대여대상 :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
- 대여기준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
가구별 소득인정액기준	882만원 이하	1470만원 이하	195만원 이하	242만원 이하	282만원 이하	1인증가시마다 40만원씩 증가
- 용자조건
 - 한도액
 - 부모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 범위내
 - 이 율 : 고정금리 연3%
 - 용자기간 : 5년거치 5년상환
- 용자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지원사업 안내

- 대 상 : 지체 및 1, 2급의 뇌병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장애인 제외)
-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 * 지원금액 : 장애인보장구 기준액의 20%지원
- 사업추진 : 2007년 4월중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대 상 : 장애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욕창방지용 매트 : 1급·2급의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 음성탐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 장애인 1, 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사업시행 : 상반기(6월중), 하반기(11월중)

휠체어택시 운영 안내

- 운영시간 : 평 일 오전 9:00 ~ 오후 5:30
토요일 오전 9:00 ~ 오후 1:00
- 운영지역 : 사천 시내(병원 진료 일정일 경우 진주까지 가능)
- 이용대상 : 사천시에서 거주하며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 임산부 및 장애인
- 서비스내용 : 개인적 용무로 외출 시 교통서비스제공 (여행목적은 제외)
- 이 용 료 : 무료(고속도로 통행료 제외)
- 이용방법 : 전화 예약 ☎ 833-0241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운행

- 운행시간 :
 - 동절기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첫째, 셋째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 하절기 : 오후 5시 30분까지
- 이용용도 : 민원업무, 출퇴근, 출타 및 귀가, 병원 등
- 이용대상 : 사천시 등록장애인
- 차량이용료

연번	지역명	금 액(원)	비고
1	삼천포~사천	2,000	
2	곤명, 서포, 곤안	3,000	
3	사천~경상대학병원	3,000	
4	그외 전주지역	4,000	
5	고성	5,000	
6	통영	9,000	
7	하동, 남해	15,000	
8	마산	20,000	
9	김해	35,000	
10	양산	40,000	
11	부산	40,000	

- 이용방법 : 전화 예약 ☎ 853-4110

노인일자리아업 참여자 모집

- 사업기간 : 2007. 3 ~ 11. 30.
- 모집기간 : 2007. 1월 ~ 2월 10일까지
- 모집대상 : 사천시 관내 65세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제외)
- 신청접수 : 읍·면·동사무소
- 근무시간 : 1일 3시간, 주4회, 월16일
- 인 건 비 : 월20만원이내 (1일 12,500원)
- 소요사업비 : 359,6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모집인원 : 250명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인력과연형
	환경정비사업	교통안전제도사업		
계	사 업	계	전통놀이전수사업	푸른숲가꾸기
112	104	18	75	67
			8	30
			23	

*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830-4353 또는 읍·면·동사무소 문의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2007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원)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4,218원씩 증가(7인가구 : 1,813,848.)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구비 서류 : 급여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호적등본, 전월세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가능

자원봉사 마일리지 할인 가맹점 가입업소 현황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양양 및 봉사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3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에게 10% 할인 가맹에 협조해 주신 이·미용업소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가맹점을 모집하오니 이·미용업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번	구분	시설(업소)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인센티브 내용	전화번호
1	수영장	사천시실내수영장	사천시장	벌리동	20%할인	
2	미용	하나로미용실	정지선	벌리동 261-5	10%할인	832-1361
3	미용	박호준과 가위잡이	최용봉	벌리동 253-10	10%할인	833-1492
4	미용	대동미용원	송길옥	서동314-4(수협점문)	10%할인	833-3359
5	미용	명랑미용원	백훈기	동금동 62-37	10%할인	833-2208
6	미용	부산미용원	서행남	사천농협 남부지소 옆	10%할인	852-5445
7	미용	평화미용관	서경순	사천읍 평화리 87	10%할인	853-4141
8	미용	신세계미용원	이갑조	사천읍 평화리 162-1	10%할인	854-3225
9	미용	이철 헤어모드	이찬석	선구동 20-14	10%할인	835-5253
10	미용	멋 헤어라인	하명숙	벌리동 벌리주공 207-103	10%할인	835-2270
11	미용	목화 미용실	박갑복	벌리동 벌리주공 입구	10%할인	832-1286
12	미용	현대미용원	정대동	선구동 281-1	10%할인	833-0068
13	미용	현대미용원	조학래	동동 184-10	10%할인	833-9061
14	미용	준해미용원	전해란	사천읍 수석리 232-9	10%할인	852-7274
15	미용	에스미용실	강해숙	벌리동 70-4	10%할인	833-6678
16	미용	타오미용실	서순락	용강동 용강주공상가 106	10%할인	832-1131
17	미용	아름미용실	유정임	벌리동 422-7	10%할인	832-2301
18	미용	수련미용실	이관자	벌리동 838 현대상가 205	10%할인	835-1381
19	미용	땡기미용실	허경애	동금동 경남상가 나-4290	10%할인	832-4290
20	미용	영광미용실	추운선	동금동 86-4	10%할인	832-6701
21	미용	조순연미용실	조순연	선구동 18-62	10%할인	833-0321
22	미용	모아미용실	김춘아	서동 322-20	10%할인	832-6525
23	미용	다솜미용실	강선경	곤안면 남문외리 52-26	10%할인	854-4047
24	미용	대한미용원	류종문	동금동 304-4	10%할인	833-6702

* 문의 : 사천시청 사회복지과 ☎ 830-4359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자원봉사자와 수요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봉사실적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주 방문하여 주시고 좋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주소 : <http://vt.sacheon.go.kr/>
- ◎ 기타 문의사항 : 사천시 사회복지과 ☎ 830-4359

보건알림방

□ 취학아동 홍역(MMR)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홍역의 유행방지와 홍역 퇴치 예방접종률 95% 수준유지를 위하여 2007년 관내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의 <2차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 홍역은 2회 예방접종(만12~15개월, 만4~6세)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MMR(홍역·볼거리·풍진)혼합백신 접종으로 볼거리와 풍진도 함께 예방하고 있다. 아이들을 홍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입학전에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홍역예방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홍역 예방접종을 확인 하시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기록이 불확실한 경우 입학전에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맞게 한 후 접종기관이 발급한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를 입학시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안내

미접종자와 무기특자는 접종기관으로부터 접종을 받은 후 접종기관에서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시 해당학교에 제출한다.

기접종자는 모자보건수첩(아기수첩)에 기재된 사항을 근거로 의료기관 및 보건소가 발급한<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시 학교에 제출한다.

접종 절대 금기사항으로 접종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단확인 후 접종 제외 대상(접종 절대 금기) 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에 표시 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 보건소 홍역(MMR) 예방접종 실시 안내

- 대 상 : 2007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으로 미접종자 또는 무기특자
- 장 소 : 보건관리과(읍지역), 보건위생과(동지역), 보건지소(면지역)
- 시 간 : 매일 오전중에 실시(09:00 ~ 12:00) (토요일제외)
- 접종비 : 무료
- 지침물 : 모자보건수첩(아기수첩), <2차 홍역예방접종증명서>, 의료보험카드

* 기타 문의사항 : 보건소 방역담당 ☎830-4761~4

2007년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취업능력 제고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07년도 고용촉진 훈련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 훈련개요
 - 훈련대상자
 - 실업자(고용보험적용 실적자는 제외), 모자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활훈련대상자는 제외), 모자보호대상자
 - 비전학 고3학년 재학생(실업계고등학교는 제외), 고령자·장애인, 군전역(예정)자, 국가유공자, 농·어업인, 5·18유공자
 - 구직활동중인 저소득층 실업자 주부 등
 - 훈련장소 : 정보통신, 간호조무, 조리, 미용 등 74개 직종
 - 훈련기간 : 직종에 따라 1~12개월 (60시간)

- 훈련생 모집
 - 선발인원 : 32명
 - 모집기간 : 2007. 1. 22 ~ 2. 14(24일간)
 - 훈련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등록표 및 신청서를 작성 제출

* 훈련대상자격자는 읍·면·동장 추천, 사천시청 선발(2005. 2. 23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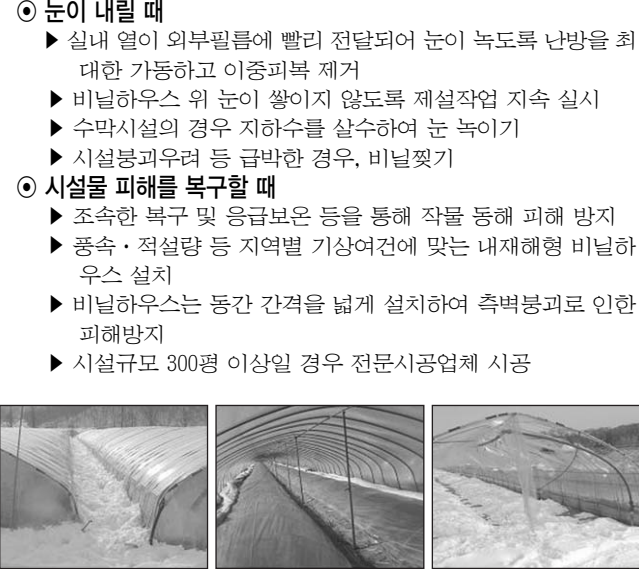
- 훈련 개시일
 - 2007. 3. 2(금)부터

- 훈련생 혜택
 - 훈련수강료 : 무료 (* 신고된 실습·재료비는 일부 훈련생에게 부담할 수도 있음)
 - 훈련수당 등 지급
 - 교통수당 : 월 5만원 → 훈련시간 1일 4시간 이상 훈련생
 - 식 사 비 : 월 6만원(1일 3,000원) → 훈련시간 1일 5시간 이상 훈련생
 - 우선직종수당 : 월 20만원 → 우선선정직종 훈련생

- 문 의
 - 사천시 고용촉진담당(055-830-4509),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비닐하우스 피해경감 농가 행동요령

- ◎ 눈이 예상될 때
 - ▶ TV, 라디오를 통하여 대설특보 상황을 주의깊게 듣기
 - ▶ 마을별, 작목별 비상연락 및 제설작업체 구축
 - 제설인력 편성(빗자루, 낙가래 등) 준비
 - ▶ 하우스 보강 지주대 및 바닥 지지관 설치 및 휴경 비닐하우스 비닐제거
 - ▶ 난방 보온손실 방지를 위해 찢어진 비닐 보수
 - ▶ 난방기 사전 점검 및 정비와 비닐하우스 위 보온덮개, 차광막 등 사전제거
 - ▶ 용설 축진 및 배제를 위해 연동하우스 곡선부 이물질 제거 및 배수로 점검·정비
 - ▶ 강풍에 날리지 않도록 비닐 끈 견고히 묶기
- ◎ 눈이 내릴 때
 - ▶ 실내 열이 외부피복에 빨리 전달되어 눈이 녹도록 난방을 최대한 가동하고 이중피복 제거
 - ▶ 비닐하우스 위 눈이 쌓이지 않도록 제설작업 지속 실시
 - ▶ 수막시설의 경우 지하수를 살수하여 눈 녹이기
 - ▶ 시설붕괴우려 등 급박한 경우, 비닐찢기
- ◎ 시설물 피해를 복구할 때
 - ▶ 조속한 복구 및 응급보은 등을 통해 작물 통해 피해 방지
 - ▶ 풍속·적설량 등 지역별 기상조건에 맞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 ▶ 비닐하우스는 동간 간격을 넓게 설치하여 축벽붕괴로 인한 피해방지
 - ▶ 시설규모 300평 이상일 경우 전문시공업체 시공



지붕위에 쌓이는 눈 쌓아내리기 반침대 세우기 피복비닐 찢기로 파이프 보존

제1기 취미·부업·자격교실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07. 2. 1 ~ 2. 22(운영기간 : 2007. 3. 2 ~ 5. 31)
- 모집대상 : 희망시민
- 수 강 료 : 3개월 30,000원 선납제 단, 자격반에 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료
- 접 수 처 :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 830-4496 ~ 4498) 인터넷(<http://edu.sacheon.go.kr>)
- 납부 계좌번호 : 농협 839-01-036518 (예금주 : 종합사회복지관) (* 반드시 수강생 명의로 입금 바랍니다)

과 목 명	인원	수강일(시간)	교육 내용	재료비
독서논술	20	수, 목(10:00~12:00)	비판적 독서와 창의적 논술방법지도	-
생활영어	20	화, 금(10:00~12:00)	실용회화 중심	15,000원
재계재량	20	화(10:00~14:00)	취기 및 재량 등 베이킹 만들기	월60,000원
댄스교실	20	수, 목(10:00~12:00)	재즈댄스, 밸리댄스, 레크레이션	-
수재교과실	20	목(10:00~12:00)	정밀모사, 스케치, 크로키, 수채화	-
한글교실	50	월, 화(10:00~12:00)	한글 기초(읽기 및 쓰기)	2,000원

과 목 명	인원	수강일(시간)	교육 내용	재료비
한식조리사	20	수, 목, 금(10:00~14:00)	한식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기	월70,000원
전문간병인	20	수, 목(10:00~14:00)	환자 및 노인 간호, 건강 실습	100,000원

- ◆ 부업반

과 목 명	인원	수강일(시간)	교육 내용	재료비
홍채선	20	월, 수(10:00~12:00)	소용, 생활용품, 주방용품, 실내용품만들기	월30,000원
비즈공예	20	화, 목(10:00~12:00)	손으로 만든 소품 및 액세서리 작품 제작	월40,000원
- 선착순 접수(정원의 2/3 미달 시는 운영이 취소됨)
- 수강에 소요되는 재료비, 교재비는 수강생 부담
-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조건에 의거 반환
 - * 개강일 7일이전 취소 : 전액 * 개강일 3일이전 취소 : 50%
 - * 개강후 취소 : 반환불가
- 사천시 인터넷(www.sacheon.go.kr)에서 볼 수 있음.

생활속의 에너지절약! 이렇게 절약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코드빼기만으로도 한달간의 전기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날연휴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에너지절약도 하고 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가지도록 합시다.

□ 생활속에서 실천은 이렇게

- 사용하지 않는 조명은 반드시 끄시다.
-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는 꺼뜨시다.
- 목욕시 불필요한 수도꼭지는 잠금시다.
-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고 교통이 편리한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 차 트렁크에 불필요한 짐을 싣지 맙시다.
- 압력밥솥을 사용하여 조리시간을 단축합시다.
- 목욕물을 아껴쓰시다.

□ 이렇게 하면 더 절약되어요

- 자연광을 적절히 활용합시다. (햇빛만으로 충분히 좋아요)
- 백열등을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합시다.
- 실내를 밝은 색으로 꾸며봅시다.
-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합시다.



새해 의정 방향을 듣는다

-제5대 사천시의회 새해 의정 방향을 들어보면-



▶ 제5대 사천시의회를 구성하면서 기초 의회의 정당정치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운영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6백년만에 행운을 가져준다는 황금돼지의 해에 우리 시민 모두가 그 행운을 꼭 잡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기초의회의 정당정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5대 원 구성을 하면서 약간의 반목과 갈등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해와 협력으로 제5대 사천시의회를 구성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업무파악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은 집행부를 긴장시키고, 활기찬 시정을 체재하는데 큰 몫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2007년도 새해 의정 방향은?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이나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기관이며, 시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균형 있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상생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새해 의정방향을 열린의정·희망의정을 목표로 삼고 자치역량 강화로 선진의회를 운영하여, 견제와 협력의 균형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직접시책으로는 첫째,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회를 운

영하겠습니. 정례회 40일을 포함해서 100일의 회기를 운영하고, 정례간담회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서 생산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하여 사이버 의정 민원실을 운영하고, 각계각층의 의정 모니터를 운영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창의적인 의회상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연수를 통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타 시군 의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면서 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과감한 지원을 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홍보하는 한편 회의장면과 시정 질문 등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방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배가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가 항구에만 정박해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깊은 바다와 풍량이 있는 넓은 바다에 나가야 만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천3백여이 넘는 거대한 우리 시정 살림살이를 12명의 시의원이 다 감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12만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시정을 감시하고, 동참할 때 우리 시민 모두가 갈망하는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해 시민 모두에게 정초에 설게한 꿈들이 이루어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 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의회 2007년 시무식 및 단배식



사천시의회는 2007. 1. 3(월) 10:30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현철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의원, 김수영 사천시장, 김석훈 부시장,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시무식 및 단배식을 가졌다.

김현철 의장은 새해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선거로 인한 후유증과 의정활동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시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가 아

니었나 생각하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5대 사천시의회가 출범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반쪽만 맛보았지만, 올해는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진정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동반자적 역할을 담당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사천을 가꾸어 나가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협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개최

사천시 의회는 지난 1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2007년도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제111회차로 개최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사천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천교육의 현황과 업무를 청취하고, 박연목교육 박물관을 방문하는 등 교육행정에 큰 관심을 가졌다.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향우동정



1. 재부 삼천포향우회 송년회, 허남식부산시장 참석 격려
지난해 12월 27일 저녁7시 부산시 범일동 크라운관광호텔 3층 목련홀에서 재부 삼천포향우회(회장 장명주)의 '2006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재경 삼천포향우회 이기호 회장, 재부 사천향우회 조용석 회장, 원정부 재부향우회 고문, 김기수 박영태 고문 등 향우회 원로들과 고향 사천시의회 김현철 의장, 재부 삼천포고 총동문회 정장식 회장, 애향운동(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본부 천봉근 회장, 울산 mbc사장인 김재철 향우를 비롯하여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향우회원들이 참석했고 푸짐

하게 상품도 쌓아 놓은 가운데 '2006년 향우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당일 특별히 허남식 부산시장이 참석하여 우리 삼천포향우 사천향우회원들을 격려하고 찬사하는 인사말을 하였다. 우리처럼 작은 지역의 사람들이 사업이나 직장을 찾아 모여 들어서 전국의 큰 도시들이 이룩되었지만, 인구 370만명의 부산시에서 그 동안에 한번이라도 현지 지장이 우리 출향우들을 찾아와 격려하거나 향우모임에 참석한 예가 거의 없었다. 비껴 보면 그 만큼 우리 사천시 출향인들의 세가 예전보다 컸다고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무척 반가운 현상이다. 이런 예로 보아 향우상이 동문회나 단체 또는 회사의 지도자인 리더의 구상과 활동에 따라 모임이 활발해지고 새롭게 발전적 계기를 맞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기에 고향의 후배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와 전국에 진출하여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할 것이다. 지금 재부 삼천포향우회 회장이 "저러다가 사업에 지지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향우회일에 정말 열심히, 덩달아 요즘 부산 향우들은 기분이 더 좋아져 보인다. 부산시에는 이권상 부시장이 우리 고향 사천사랑이고 조성호 시장비서실장이 사천출신으로 향우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 2. 재서울 삼천포향우회에서 전한 온 신년회
재경 삼천포향우회(회장 이기호)의 신년회가 2007년 1월 18일 저녁 6시30분 서울 서초동 교대역 참배나무골 오리집에서 있었다. 금년 신년회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 조촐하게 모임을 가졌다. 참석한 원로분은 강형석 고문님, 이기호 회장님과 재부산향우회 장명주 회장이 멀리서 참석했다. 그리고 고향출신 김형주(서울 광진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향우들은 모두 새해를 맞이하여 덕담 한마디씩 나누면서 6월에 예정된 정기총회 개최문제와 향우회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들이 나왔으며, 특



생생한 민의 수렴을 위한 현장 방문 광경

시정 박 소식

민주평통 시협의회 2006년 평가에서 국민훈장과 대통령 표창 수상



민주평통화일자문회의 시협의회는 2006년 평가에서 장병석 회장은 국민훈장을, 고훈애 여성분과위원장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장병석 협의회장은 2006년 평가에서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본이념인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의 통일외지와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자문위원간의 화합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지난 12월 21일 대통령으로부터 친수 받았으며, 이날 장병석 협의회장은 본 협의회가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의 '중심체'로서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통일외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평화통일을 위해 더욱더 분발할 것을 다짐했다. 고훈애 여성분과위원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지역민의 통일 기반조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였으며, 특히 통일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북한정세 설

명회를 개최, 남북관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정보전달로 평화통일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2006년도 유공자 문위원으로 선정되어, 1월 10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지원 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시지사(지사장 이병수)는 지난 1월 17일 관내 저소득·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보험료지원자 인원을 사전에 「사전년면」대표 성재근 씨와의 보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사업은 '나눔도 함께 건강도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천시 관내 저소득·취약계층 33세대에 대해 올해 매월 고지될 예정인 보험료 12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안정적 인 진료혜택은 물론 이웃사랑 실천의 시발점이 되는 등 지역업

체와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재건년면 대표 성재근 씨는 작년에도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12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외에도 홀로사는 노인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지속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병수 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은 향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불예방 및 산악사고방지 합동 캠페인 전개



사천소방서(서장 이채순), 연합회장(김현철, 김두임)은 1. 26(금) 10:00부터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관내 산불취약지역 와룡산의 3개소(각산, 불명산 등) 주요 등산로 일원에서 소방공무원 60명, 의용소방대원 640명을 현장에 투입, 사천시를 찾는 주말 등산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산불예방 및 산악사고방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2007년 산불예방기간 지속적으로 산불예방홍보 순찰 활동을 주기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산악사고시 응급처치요령

체험장 운영, 지역문화체육행사 자원안전도우미 역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천시 재난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365일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이미지 확산과 재난없는 사천시 만들기에 혼신의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07년 취업교육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인원
 - 학과 : 컴퓨터응용기계(90명), 자동차(60명), 산업설비(60명), 전기제어(90명), 산업디자인(60명)
- 교육기간 : 2007. 3 ~ 2008. 2 (주간 1년간)
- 응시자격
 - 학력 : 제한없음
 - 연령 : 만15세이상 45세이하
 - 전문대학, 대학교졸업 예정자로서 취업을 원하는 자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본교 교학팀, 홈페이지)
- 원서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 : 2006. 12. 1 ~ 2007. 2. 21
 - 원서교부처 : 한국폴리텍Ⅶ대학 진주캠퍼스 (본교 교학팀)
- 기타
 - 면접일시 : 2007. 2. 22(목) 10:00
 - 합격자발표 : 2007. 2. 26(월)
 - 면접장소 : 본교
 - ※ 문의처 : 한국폴리텍Ⅶ대학 진주캠퍼스 입학상담 / 교학팀 (http://vt-jinju.hrdkorea.or.kr)

건강보험 2007년 새해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험료 경감대상 확대(2007.7.1 시행)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휴직자 등에 보험료 일부 경감하여 저소득층 부담완화
실업자 특례조항 신설(2007.7.1 시행)
요건 갖춘 실업자는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시행(2006.12.29시행)
5년간 약제비총액 증가율이 OECD 국가의 2.1배 - 선별부담방식(Positive List System) -
2007년 건강보험료 6.5% 인상(2007.1.1 시행)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내용(관련법령 개정)
○ 직장보험료 부과등급제 폐지(2007.1.1부터 시행)
- 종전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적용 부과등급(1~100등급)이 폐지되고
- 보험료 산정 보수기준이 종전 '표준보수월액'에서 '보수월액'으로 변경됨.
○ 직장보험료 보수월액 상·하한선 조정(2007.1.1부터 시행)
-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으로
-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하는 6,579만원으로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내용(관련법령 개정)
○ 지역보험료 부과등급제 폐지(2007.1.1부터 시행)
- 종전 지역가입자 부과표준소득 부과등급(1~100등급)이 폐지되고
- 보험료 산정 기준이 종전 '부과표준소득'에서 '보험료부과점수'로 변경됨.
○ 지역보험료 보험료부과점수 상·하한선 조정(2007.1.1부터 시행)
- 하한선 : 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은 20점으로
- 상한선 :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11,000점 초과하는 11,000점으로
○ 지역보험료 보험료부과점수 점수당 금액(2007.1.1부터 시행)
- 점수당 금액 : 139.9원

2007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 보험료율 : 4.77% (사용자 2.385%, 가입자 2.385%)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산정기준	부과표준소득 등급별 적용점수	보험료부과점수
합산금액	131.4원	139.9원

구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4,771,000	2,385,500	2,385,500	
공무원	4,771,000	2,385,500	2,385,500	2,385,500
사립학교교직원	4,771,000	2,385,500	1,431,300	1,034,200
군인	4,771,000	2,385,500		2,385,500

○ 가입자부담(50%)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 1인 총 보험료(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 가입자 부담보험료 (10원미만 단수 버림) × 2

보수월액 범위	보험료율	월보험료 산정
28만원 미만	2.385%	= 28만원 × 2.385%
28만원이상 ~ 6,579만원	2.385%	= 실제 보수월액 × 2.385%
6,579만원 초과	2.385%	= 6,579만원 × 2.385%

보험료환급금 사기 "조심하세요"
공단에서는 현금인출기를 통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안대문 발송 후 공단에 지급 신청 -



우주항공소년포족이의항공이야기 (38)

항공스포츠(Air Sports) - 모형항공기(Model Plane)



국내 항공 스포츠 가운데 가장 많은 동호인을 확보하고 있는 모형항공기는 초등학생부터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으며, 종류도 다양하다.

모형항공기는 실물인 항공기의 형상을 축소하여 만든 소형 비행기로서, 동력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사람이 타지 않고 크기가 제한된 비행기를 말하며, 모형비행기라고도 한다. 모형항공기는 실제 비행기의 연구용인 풍동모형과 실제 비행기를 완전한 형태로 축적한 형태모형 등 날지 못하는 고정형모형과 비행용 목적을 하는 비행모형으로 구분되며, 또한 비행형식에 따라 자유비행형(프리플라이트)과 조종형(컨트롤 라인, 라디오 컨트롤)으로 분류된다. 모형항공기는 추진 동력의 유무에 따라 무동력비행과 동력비행으로 나뉜다. 무동력비행은 동력장치 없이 비행하는 글라이더 비행을 말하며, 무동력글라이더를 공중에 올리는 방법은 손으로 던지는 방법, 고무줄로 견인하는 방법, 동력비행기로 견인하는 방법과 절벽 또는 급경사면의 상승기류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동력비행은 엔진 또는 모터와 같은 동력장치를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비행이며, 동력장치는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과 전기모터로 구분된다.

모형항공기 대회는 제공시간을 겨루는 경기와

조종기술을 겨루는 경기로 구분된다. 프리플라이트 종목은 항공기를 공중에 띄운 후 바람에 따라 인위적인 조종장치 없이 날리는 방식으로 모형항공기 경기 중 가장 기본이 된다. 토잉 글라이더와 고무동력 글라이더가 여기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제공시간을 측정하여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컨트롤 라인 종목은 컨트롤 라인과 연결된 기체를 지상에 서 있는 조종자가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는 경기 방식으로서, 와이어를 이용하는 방식은 UC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조종핸들이 U자형으로 생긴데서 연유한다. 라디오 컨트롤 종목은 무선전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무선조종 또는 RC(Radio Control)라고 하며, 아크로바틱(acrobatic) 종목과 파일톤(pylon) 종목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형항공기 대회는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이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하는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는 "어린이 중심의 항공과학 축제"로서 공군이 1979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이다. 매년 4월경에 지역별 예선대회를 거친 후 본선대회는 5월 하순경에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다. 대회 종목은 예선대회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유비행 부문(글라이더, 고무동력)을, 본선에서는 예선대회 자유비행 부문과 더불어 일반인이 참가하는 비행 시뮬레이션 대회(공대공 전투, 공대지 공격, 항공기 착륙, 레이싱 등) 및 동력비행종목(유·무선조종, 무선헬기, 무선글라이더)을 실시하고 있다.

/김형래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사천(泗川)을 말한다

내가 사는 우리사천은 우주의 꿈을 안고 잘도 달린다

월고 때쯤 산꼭 바다는 번영의 터전이 되어 첨단항공기 T-50의 마하로 전진 하거나 웅비하는 나라에는 30만의 씨알을 품을 아담하고도 조용한, 살맛나는 보급자리로

와룡의 순진한 정기를 담아 겸양의 감추운 기질 예서 숨인다. 청정한 남해의 물결만큼이나 푸른 꿈 가꾸어서 행복이 응그는 세계속의 옛 사물 하늘로 우주로 미래를 향해 우리의 희망을 일구워가자

이봉희 · 곤명 추동

시만칼럼

칭찬과 격려

지난 휴일에 남편이 직장의 동료들과 등산을 간다고 내게 도시락을 준비해 달라기에 나름대로 성의껏 오곡밥을 담고 반찬으로는 김치, 달걀말이, 마른 오징어 무침을 만들어 따뜻한 물을 보온병에 담아배낭에 넣어 주었다. 남편은 툴툴달라 휘파람을 불며 즐겁게 등산을 갔다 와서는 입이 귀 밑까지 찢어져 흡족해 했다. 이유를 물으니 내가 만든 반찬이 최고로 잘 팔리고 직장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모를 칭찬을 했다. 그리고는 상사가 아내에게 갖다 주라고 했다면서 먹다가 남은 꿀 네 개와 큼직한 배를 한 개 넣어 왔다. 어쨌든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매우 좋았고 삶의 활력이 느껴지는 듯했다.

대부분의 가정주부들은 살림 잘하고 아이 잘 키우고 음식 맛있게 잘 만든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

이 좋아진다. 나는 13년 전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남편은 감정표현에 인색해 칭찬이나 격려를 보내는 경향이 별로 없었다. 남편은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라 무뎠던 것이 이를테 없다. 거짓말도라 아내를 사랑한다. 당신이 최고야를 말해주면 신바람이 나서 살아가는 기쁨이 툄텐데 도무지 사랑표현이나 칭찬에 인색하니 남편의 속마음을 헤아릴 길은 없었다. 그런데 지난번에 등산을 다녀온 뒤로 가끔 칭찬인지 아부성 발언인지 모를 말을 하니 뭔가 공공이속이 있는지 아니면 사고방식을 바꿔 낙천적으로 살기로 했는지 모르겠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듯 칭찬은 돈 들이지 않고 사람을 힘이 나게 하는 마술적인 힘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칭찬에 인색하다. 남을 비난

하는 일에는 정열을 보이면서 칭찬하고 위로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남의 약점을 꼬집어 내어 중상 모략하는데 일가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그런 여파로 사촌이 눈을 사면 배 아파 하는 풍토도 있다. 이제 남의 장점을 발견해 칭찬을 자주 하는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칭찬과 격려를 일삼아 용기를 북돋우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요사이 국정환란과 경제난으로 어깨가 처진 사람들이 많다. 서로가 칭찬하고 위로하며 삶의 의욕을 북돋워 주는 모습은 보기에든 아름다울 것이다. 나는 앞으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 적극 칭찬하며 살아갈 것이다. 남을 칭찬하면 나 스스로도 기분이 흐트하여 엔도르핀이 솟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윤철 · 부산광역시 사하구

태평성대를 꿈꾸며...

에는 긍정적인 날씨가 선택되기를 기원했었는데 흑시나가 역시나로 결론지어져 씁쓸하다.

이처럼 부정적인 한자성어가 난무하는 데는 지도자들이 국민복을 뒷전인 채 사리사욕을 추구하거나 당리당락을 중히여겨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나라의 안위나 국민의 행복은 관계치고 정파의 이익과 개인의 위업에만 탐닉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하자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은 극도의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실업자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교

육비의 파다는 국의 탈출을 꿈꾸며 희망을 잃은 국민들은 자포자기 상태이다. 연구와 투자를 해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기업도 불확실한 국내 환경과 노사 분규,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투자심리가 위축돼 투자를 꺼리고 막대한 돈을 쌓아 놓거나 해외 투자만 일삼고 있다. 기업의 투자가 없으니 청년백수는 더욱 늘어나고 중장년 백수도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실정이다.

언제쯤이면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편안한 해가 될 수 있을까?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는 안

정되어 국민들이 의식주 걱정을 않고 격양가를 부르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것인가? 2007년도에도 긍정적인 한자성어는 선택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 벌써부터 과열 조짐이 보이고 정부 여당은 분열의 길을 걷고 있다. 주변의 열광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경쟁에 앞서려고 혼신의 열정을 기울이는데 한국은 부질없는 골육상쟁을 펼치고 있으니 암담할 따름이다. 제발 부락컨대 2007년 도에는 정치지도자들이 국민민복에 충실하여 태평성대(太平聖代), 강구연월(康衢煙月), 매검매우(賈劍賈牛) 같은 긍정적인 날씨가 선택되길 희망한다.

/박정호 · 부산 사하구 다대동

새 조개



요즘 갯가에 가면 새 조개에 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어업인들에게는 주요한 소득이지만 생산자와 구매자, 어업자와 어업자 간에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민원이 늘어나므로 수산당국과 해양 등 관련기관에서는 새 조개가 많이 생산되면 그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다.

새 조개는 수심 10m 미만의 연안 퇴적층에 서식하는 패류로 우리지역에서는 갈망조개, 갈매기조개, 해방조개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은 새 조개 맛이 닭고기 맛과 비슷하고 즐겨 먹는 부위(발)가 새의 머리 또는 갈매기 모양과 닮았

다 하여 붙여졌으며 해방이 되던 해에 많이 생산되었으므로 해방조개라 부르게 되었다. 영어로는 cockle(새조개)인데 cock(수탉)가 어원이 아닌가 생각된다.

새 조개는 바지락, 백합과는 달리 몸체의 일부가 해저면에 노출되어있는데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이 다가오면 긴 발과 수관 등을 이용하여 훌쩍 뛰어 날아서 도망칠 수 있다.(긴 발로 집프하고 수관으로 분사하는 작용과 반작용 효과로 이동)

새 조개는 해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개 7~9월에 산란하고 다음해 3~4월이 되면 각장과 각고가 모두 7~8cm의 성패로 자라 상품이 된다. 껍데기는 담황갈색으로 재질이 다른 패류에 비하여 얇고 앞뒷면이 부풀며 껍데기 표면에는 40개 정도의 방사조가 있고 그 위에는 각피가 단모상으로 되어있다.

현재 사천만 일원의 대부분의 수역에 새조개가 서식하고 자원량은 600~1,000톤, 시가로는 60억~1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새 조개는 가공처리 된 후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되며, 새 조개가 생산되면 작업어선, 유통업자, 가공업체 및 냉동 공장 등이 활력을 갖게 되고 고용도 증대되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대부분의 조개류가 그렇듯이

새 조개 역시 산란기 이전인 3~6월에 채취하는 것이 수율이 높고 맛과 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상품성이 좋다. 그러나 어장 환경과 어장의 위치에 따라 작황에 차이가 있고 이 시기에 대량 생산되면 가격 형성과 가격지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산업자나 어업관리자(어업면허를 가진 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시기를 조절하여 채취하고 있다.

식용부위는 발과 "K"모양의 몸통일부인데 횡감으로 사용되고 하도 자숙, 냉동 후 초밥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새조개 샤브샤브, 새조개 무침 등 다양한 요리법이 있고 맛이 담백하고 단맛이 있으며 타우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숙취해독과 미용에도 좋다.

/문정호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낙남 정맥 등산로 정비를 마치고...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도남재에서 상사바위까지 일을 마쳤고 백전골에서 하늘만당 까지도 마치고 용두 뒷산에서 기차바위를 거쳐 민재봉까지도 깨끗한 등산로를 만들었습니다.

일을 하던 중,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씁스레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등산객은 수고한다며, 어떤 등산객은 더워서 땀방울을 닦고 쉬고 있으면, 일은 안하고 놀고 있다면서 휴대폰으로 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문제를 만드는 알미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항상 수고한다면서 위로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녹지과 과장님과 우리를 보살피는 녹지과 보호계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와룡산 정비가 어느 정도 끝나고, 우리 일행은 사천시 정동면 구암1리,2리에서 정동면 대곡, 감곡까지 약10km의 산으

로 연결된 우리나라 1대간(백두대간) 9정맥 중 제일남단에 위치한 "낙남정맥"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서니 몇 년 전 매미대풍과 또 여러 태풍을 맞으면서 넘어진 나무들과 고사목들이 엮히고 설켜서 엉망이었습니다.

우리 일행들은 무더위도 무뎠고 열심히 정리해나가니 일한 보람이 있었고 우리가 보아도 자랑할 만큼 깨끗하게 정리되어가던 어느 날, 한 등산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해에서 출발하여 고성을 거쳐 이곳 낙남정맥을 타고 지리산으로 간다면서 이곳 낙남정맥을 잘 알고 있는 등산객이었습니다. 그분도 쉬고 우리도 땀방울을 닦으며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느냐고 묻기에 우리는 사천시 녹지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한다고 칭찬하면서 사천시 녹지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과 우리 일행에게도 수고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 일행들은 더욱 더 힘을 내서 무더위를 이기고 1개월 동안 아무 사고 없이 낙남정맥의 정비를 마치고 지난 12월 13일로 모든 새 가꾸기 2006년 사업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일행자가 되어 있지만 녹지과 관계 공무원의 말씀에 의하면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웃으며 내년에 보자는 말과 함께 헤어졌지만 녹지과 과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님 올케는 이런 일을 더 많이 만들어서 저희처럼 어려운 실업자를 많이 모집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철규 · 사천시 대방동

사천의 명산을 찾아서



丁亥年의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황금돼지의 해라하여 많은 사람들이 들떠있는 가운데 설렘 속에 새해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사천땅 테두리를 따라서 사천시 경계종주를 사천시보에 연재하여 관심있는 사람들로 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다. 격려해주신 분들과 누구보다 끈양면에서 신분도 밝히지도 않고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과 함께 매번 많은 격려는 물론, 연말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A4용지 2장을 가득 메운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시 이쯤도 알 수없는 고마운 분에게 이 지면을 빌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천시 경계종주를 끝

내고 사천의 산을 한번 찾아보기로 한다. 사천시는 한려수도의 중심에 있는 해안도시로서 100km 가 넘는 해안선과 풍부한 어장, 삼천포항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많은 어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천은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서 전국최대의 항공우주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사천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줄기인 낙남정맥이 지나고 와룡산을 비롯한 많은 명산을 지니고 있어 산림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면 사천의 대표적인 산은 어떤 산인가? 한번 찾아보기로 하자. 여기에 소개되는 산은 등산로가 나있는 산을 중심으로 우리 사천 시민들에게 너무 잘 알려진 산이라 대략 그 산의 개요만 설명코자 한다.

1. 와룡산(臥龍山 798.6m)

사천시의 가장 대표적인 산으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암릉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산! 정상인 민재봉을 비롯하여 전문산악인들의 요람인 상사바위와 세섬바위

의 위용은 와룡산의 상징이다. 불이 면 온 산을 수놓는 철쭉과 아름다운 한려수도를 바라볼 수 있는 비경을 간직하고 있다. 해마다 열리는 와룡산 비룡제는 전국적인 행사로 수많은 산악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산림청 지정 100대 명산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사천8경의 하나다. 등산코스로는 체력과 시간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가 있으며 도로와 교통이 좋아 어떤 코스로도 접근이 용이하다. 종주코스로 뽕현면 석거리에서 안점봉화대로 올라 구룡산 하늘만당과 백전골을 지나 민재봉에서 용두마을이나 남포로 내려오는 코스는 한변승 해 볼만도 하다.

2. 이명산(理明山 570m)

사천시에서 해발이 두 번째로 높은 산으로 곤양면과 하동의 진교면과 경계한다. 이명산의 주봉인 달구봉에는 깊은 못이 있었는데 하늘로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의 전설을 간직한 산이다. 83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봉명산(408m)과 함께 연결하여 산행할 수 있으면 좋다. 도로를 건너 위치한 이명산을 제쳐둔 채 주로 봉명산을 많이 찾는다. 방장산이라고도 부르는 봉명산자락에는 신라 지증왕대 창건한

다솔사(多率寺)에서 서봉암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정비가 잘 되어있고 봉명산 정상에 전망대를 비롯하여 휴게시설도 있다.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의 형상이라 하여 다솔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한편 소나무가 많다 하여 다솔이라는 이름답게 백백이 들어선 아름다리 노송 숲을 가족들과 큰 부담 없이 다녀 올만한 산이다.

3. 이구산 (昵丘山 378m)

사천 정동의 수청마을 배경이 되는 산으로 사남면과 경계하며 고찰인 국관사를 안고 있다. 정동면 예수리에서 선황사를 지나 임도를 따라 성황당산성 (209.8m)에 오르면 넓은 초원 지대가 펼쳐진다. 한가운데 위치한 성황당산전에 참배를 마치고 잠시 땀을 닦아 오르면 전망이 트이면서 휴게시설이 있다. 등산로 정비와 이정표설치도 잘 되어있고 수양산악회에서도 국관사로 하산길과 안내판 설치 등 많은 손길의 흔적이 보인다. 잠시 숲을 고른 뒤 30여분이면 이구산에 도착한다. 대체로 여기서 되돌아오거나 국관사로 하산을 한다. 그러나 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남동쪽으로 진행하여 임도를 건너서 홍두산(454.7m)까지 다녀 올 수 있다면 관청은 하루

코스도 될 것이다. 성황당산성에서 중심산인 이구산을 거쳐 홍두산까지 이어지는 산길은 큰 고도의 차이도 없이 아기가기한 오솔길로 이어져 풀과 낭만이 깃든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산이다.

4. 어정산 (御停山 352m)

사천을 구암리에 소재하는 산으로 정동면 풍정리와 진주시 금곡면 죽곡리와 경계한다. 어정산은 단독 산으로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산이나 백두대간과 정맥종주산행이 성행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임금님이 거닐었다는 산으로 고려 현종이 배방사에서 우거(寓居)할 때 자꾸 이 산을 찾아 노닐었다고 하며, 한편으로는 이태조가 대방의 꿈을 안고 명산대전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올릴 적에 자주 왕래하였다고하여 어정산이라 이름 정해졌다고 한다. 특히 어정산은 낙남정맥이 지나는 산으로 전국의 산꾼들이 자주 찾는 곳이며 무선산(277.5m)에서 돌장고개를 건너 어정산을 올라 천금산과 봉대산을 지나 부런이재까지 걷는다면 하루산행이 좋을 것이다. 산길은 낙남정맥의 구간이라 양호한 편이고 정동면 풍정리나 사천향교 뒷산에서 어정산으로 올라

도 좋은 코스이다.

5. 각산 (角山 398.2m)

삼천포항에서 서남쪽으로 위치한 각산은 백제 무왕대 축조된 각산산성과 마루가 있으며 고려 원종때 통신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각산봉화대는 남해 금산과 남해안의 봉화를 받아 용현의 안점봉화대로 연락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각산 정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삼천포대교와 죽방령, 섬으로 조화를 이룬 한려해상의 조망과 실안낙조의 아름다움은 가히 환상적이다. 그리고 각산은 시내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어디서든 걸어서도 접근할 수가 있어 실안봉에서 대방사 쪽에서 정상상을 올라 모흥사 쪽으로 하산하는 종주산행을 택할 수 있다면 한나절 산행의 묘미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각산은 등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민공원으로서 약수터를 비롯하여 체육시설 등으로 시민들의 더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산이다.

사천의 명산은 이쯤에서 끝내고 다음호부터는 사천에서 쉽게 다녀올 수 있는 산을 찾아간다.

/조만중 · 사천농협

사천읍 사천향교뒷산의 새해 해돋이에 인파 몰려

사천향교뒷산이 해맞이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향교뒷산의 해맞이는 지난 해에 이어 올 1월 1일(월) 아침에도 사천읍주민자치센터(위원장 성재근) 주관으로 개최하였는데, 시의원을 비롯한 시민 1,000여명의 많은 인파가 몰려 지나간 2006년 경술년을 아쉬워하며 2007년 정해년을 맞는 사람들이 저마다 소원을 빌었다. 이날 향교뒷산 해맞이 행사에는 성재근 위원장의 국민인간을 기리는 산신제와 함께 주민자치센터의 풍물놀이와 산신을 달렸으며, 준비한 떡을 참여한 주민에게 제공하였다. 이밖에도 정외리 청년회가 주축이 된 정우회(회장 최명국)에서 300인분의 떡국과 음료를 나눠주는 등 이날 행사에는 따뜻한 마음이 2007년을 여는 새해 새아침을 활짝 열었으며 내년에도 이 행사를 계속해서 갖기로 했다.

주민자치센터 자체 평가발표회



리별 발표회 및 노래자랑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발표마다 우렁찬 박수와 함께 뜨거운 열기로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와 풍물반, 그리고 댄스스포츠반의 2006년도 자원봉사 활동 보고서에서는 참석한 많은 수강생과 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공감하였으며, 각 동아리마다 아쉬움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값진 계기가 되었다.

사천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성재근)는 주민자치센터의 1년간 운영 상황을 평가하는 자체 평가발표회를 지난해 12월 27일(수) 사천읍 주민자치센터에서 200여명의 주민과 수강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자체평가회에서는 풍물반의 힘찬 사물놀이 시연을 시작으로 하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동아



나기"를 돕기 위해 빨간(3톤 분량)을 지원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빨간은 축동면 탐리에 소재하고 있는 '대진목재(대표 정인창)'에서 축동면사무소에서 독거노인을 위해 "화목"을 수집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적극 동참하고자 흔쾌히 쾌척하였으며 축동면 자원봉사회(회장이

미숙)와 산불감시대에서는 노력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축동면직원상조회에서는 청소, 빨래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독거노인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 전체에 따뜻한 사랑을 듬뿍 안겨 주었다.

곤양면 곤양면 체육회 장학금 전달



원이 지급되었다.

곤양면 체육회(회장 김삼백)는 지역내 우수한 체육특기생 육성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체육성적 우수 학생 10명에게 지난 1월 11일 장학증서 수여를 했다. 곤양면체육회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전달식에서는 제29회 경남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김태현(곤양초, 6년)군이 대표로 장학증서를 수여받았으며 각10만원씩 총100만

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 가져

곤양자율방범대는 지난 1월 9일(화요일) 오전 10시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 8~9대 곤양 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이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곤양자율방범대를 잘 이끌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강만수 전임자율방범대장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되었으며, 취임사에 나선 제9대 이창열 대장은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막중한 임무와 책임감을 느끼며 대원의 화합과 야간 순찰활동 등을 강화하여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곤명면 완사 시장 "오늘은 장날"촬영



1월 16일(화) 곤명면 완사 시장을 진주 MBC TV "오늘은 장날" 프로그램에서 촬영을 했다. "오늘은 장날" 촬영팀은 PD 서창수와 30명으로 진행자는 뽀빠이 이상용씨가 맡았으며 초청가수로는 현숙씨가 출연하였다. 이날 촬영 내용은 곤명면의 특산물인 딸기, 새송이 버섯, 고추 등과 먹거리로는 피순대 등이 소개되었으며 5일장인 완사시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방영일시 진주MBC 2. 9(금) 18:50 ~ 19:50 방영 예정이다.

동서동 김수영 시장 새해 첫 동서동 방문

김수영 시장은 지난 9일 새해 읍면동 방문 중 제일 먼저 동서동을 방문하여 시의원, 조직단체원, 관내 주민 등 90여명과 자리를 같이 하고 90여분에 걸쳐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동서동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시작된 이번 대화의 시간에는 동정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솔직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과 설명이 이어졌으며 시장은 이 자리를 통해 동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동서동 새마을협의회 새해 각오다져



새로운 한해의 시작과 함께 동서동 새마을회에서는 새마을 활동에 사용될 기금마련을 위해 지난 1월 5일 회원16명이 참여하여 폐식용유를 이용한 무공해 환경비누 2,000여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공해 비누는 각 통의 부녀회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연중 판매가 될 예정이다.

또한, 8일 정기 월례회를 통해 남녀회장은 지난 한해 새마을 위상을 높여 온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올해도 새로운 각오로 새마을 활동을 잘 펼쳐 주시기를 당부함과 아울러 올해의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등 힘과 뜻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다.

선구동 1·2동 경로당 문 열어



지난 1월 10일(수) 선구동1·2동 경로당 준공식이 열렸다. 선구동 288-21번지에 소재한 선구동1·2동경로당은 총사업비 1억1천여만원을 들여 2006년 10월 착공하여 지난 1월 준공되었다. 그동안 선구동 1동, 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이 경로당이 아름다운 전원주택 모습으로 문을 열자, 100여명 노인들에게 침터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수영 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경로당건립 추진위원장과 노인회장 등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현판식을 마치고, 참석한 주민들은 떡, 과일 등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경로당 개소를 자축했다.

지리산 천왕봉 정해년 새해 첫 등반

지난해 7월 개강한 선구동등산학교(회장 이대수)는 정해년을 맞아 지리산 천왕봉으로 새해 첫 등반을 시작했다. 40여명의 회원들은 새벽 6시 선구동사무소

를 출발, 중산리에 도착해서 가볍게 몸을 풀고 산행에 나섰다. 중산리를 출발해 갈바위, 법계사를 거쳐 천왕봉(1,918m)에 도착하여 올 한해 선구동등산학교의 발전과 안녕을 비는 고사를 지낸 후 하산하였다. 새해 첫 등반으로 지리산 천왕봉을 정복한 회원들은 산행을 마친 후 자신감과 활기가 넘쳤다.

- * 2월 일정 → 일시 : 2월 25일 장소 : 충북 단양 소백산
- * 기타 문의사항 : 선구동사무소 등산학교 담당자 (☎830-4910)

동서금동 팔포매립지 해수인입선 시연식



지난 8일 서금동 팔포매립지에 소재한 횡집에서는 팔포상가번영회(회장 최충림) 및 관련인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인입선 시연식이 열렸다. 오랜 숙원 사업으로 해수인입관로(5,961m), 해수퇴수관로(719m), 펌프장 1식, 물탱크 1식의 시설물에 대해 사천시장(위탁자)과 팔포상가번영회장(수탁자)은 위탁운영협약서를 체결

하여 앞으로 팔포매립지 횡집지역에 맑고 깨끗한 해수공급으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최고의 횡집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의 열매달기' 행사 및 먹거리 나눔장터 열려

지난해 12월 19일 동서금동 자원봉사자협의회(회장 박삼순), 새마을부녀회(회장 임윤자)가 주관하여 이웃사랑의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랑의 열매달기' 행사와 함께 먹거리 나눔장터를 열었다. 차가운 날씨 속에 먹거리 장터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불거리를 제공하였고, '사랑의 열매달기' 행사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벌용동 외룡저수지 주변 산책로, 웰빙시대 주민들에게 각광 기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작년 10월에 시작한 외룡저수지 주변 산책로 개설이 올 2월 17일 완공될 예정이다.

우레탄 소재의 폭 3m, 길이 907m의 산책로는 주위에 식재된 관상수와 함께 와룡산의 수려한 자연과 어우러져 웰빙시대 시민들에게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지역 천혜의 관광자원인 와룡산에는 산책로와 함께 앞으로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체육시설, 휴식공간, 자전거도로 등 1만8천여평의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휴식처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시 불우이웃돕기 손길 잇따라

작년 말에 이어 올 연시에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통별 주민들의 정성을 모아 4백여만원의 성금을 기탁하였으며, 통장협의회 등 벌용동 8개 단체에서 1백1십만원원을 기탁하였다.

동광산업(대표 변형석)에서 50만원, 한아름꽃집(대표 이현숙)에서 50만원의 위문금을 기탁하였고, 삼천포연합동창회(회장 천현권)에서는 소년소녀가장 2세대에 대해 장학금 4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삼천포중앙라이온스클럽(회장 김진수)에서는 연탄 1,000장을 기탁하였고, 삼별회(회장 배창수) 36만원, 삼천포중기협회(회장 김정석) 30만원, 삼천포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삼연) 20만원, 화요회(회장 권정모) 20만원, 진원건설(대표 김진수)에서 20만원 외에도 많은 분들이 뜻을 전했다.

동에서는 모은 성금을 자체 이웃돕기, 공동모금회, 방승국 등을 통해 활용할 계획이다.

향촌동 휴경지 경작 "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향촌동 농업인 모임인 '대형농기계친목회'(회장 김영삼, 회원 23명)에서는 휴경농지를 이용하여 회원들이 직접 경작한 백미를 (10kg 20포) 관내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 위문했다.

대형농기계친목회 회원들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목적으로 회원들이 솔선 참여하여 관내 휴경지 9,180㎡에서 생산한 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증, 매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남양동 각산 산복도로 개설공사 관련 주민설명회



지난 1월 10일(수) 남양동사무소에서 각산 산복도로(새고개·모충공원간)개설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은 시의원 (이문상,이삼수), 마을 통·반장, 관계 공무원, 마을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각산 산복도로에 대해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남양동장(박삼철)의 사업개요 설명과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강삼중)의 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은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각산 산복도로를 조기 완공시켜 사천시의 발전을 더욱 앞당겨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기초질서 캠페인 전개

바르게살기남양동위원회(회장 김용자) 15명은 지난 1월 4일(목) 08:00~08:50 남양동사무소 주변에서 환경 및 거리질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 지역은 상권이 집중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요령 전달지를 배포하고 쓰레기규격봉투 사용과 분리 배출토록 계도하다. 또한 이 지역은 교통이 번잡하고 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여 교통질서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정동면 나눔을 실천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사천센터



올해 초 염광 마을과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기술품질원 사천센터(센터장 이재화)는 연말연시를 맞아 염광마을을 방문, 5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 기업은 2003년부터 매년 새해 및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어, 혜택을 받는 마을민은 물론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사남면 제7회 사남면민 기원제 개최

2007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남면민 기원제 행사 추진위원회주관으로 면민들의 건강과 무사안녕을 위하여 지난달 4일 오전11시 이구산 자락 기원제단에서 면민과 시의원, 각 자생조직 단체 회원 100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면민 기원제 행사가 엄숙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추진위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을 제단에 올린 후 축문낭독 및 제향, 헌작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올 한해 면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였다.

사남중대본부 현판식



방위 작전 수행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건물 내부를 단장하였으며, 주변에 위치해 있는 면사무소, 보건소, 사남치안센터 등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차량주차 공간도 조성하였다.

1월 10일 시장, 연대장, 대대장, 지역대장 및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남중대본부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사남중대본부 건물은 1983년 건축되어 오랫동안 향토방위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건물이 낡아 제 역할을 못할 정도였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착공하여 300여 평의 부지를 맡맡히 정비하고 향토

용현면 사천경찰서 용현면지구대 준공



을 맡맡히 철거하고 새롭게 단장하여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던 점을 해소시키는 물론 지역의 주민이나 각 단체 등이 회의실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우리면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예정이다.

용현지구대는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시의원, 기관 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준공식을 가졌다. 용현지구대는 1981년부터 사용하던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하게 되었다. 신청사는 면사무소 청사와 담장을

용현농협 노년층대상 한글교실 운영

용현농협(조합장 신재근)에서는 성인문해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면 장승마을 내 18명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본민송지리 소재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인 행복한집 박혜숙 원장(42)을 강사로 초빙하여 10개월의 교육기간으로 매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교재 및 교구는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19일에는 장승마을회관에서 관내 기관단체장 및 마을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가짐으로써 한글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층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축동면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평소 '살아 숨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있는데 지난 1월 17일에는 고령(99세)에 의지할 곳 없이 혼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따뜻한 겨울

사천이 뜨고 있다 ⑥

'지도를 거꾸로 보면 사천의 진로가 보입니다.' 사천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꼬트머리에 위치한 도시가 아니라 태평양과 동아시아로 향한 길목의 중심으로서 불류통로에 있습니다. 어느새 사천시는 '부러운 도시'로 경남에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뜨고 있습니다. 사천시보는 지면을 빌려 사천이 뜨고 있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게재코자 합니다.

다 함께 '사천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천시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속의 사천시로 나아갑니다.'

/편집자 주



한 작목전환사업을 떠나 생산 조정제도로 어려운 농촌에 희망을 제시하고 지역특산물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촌산업의 세계화에 경쟁할 수 있는 전략으로 추진하였다.

전국 최고의 평지다원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금성마을 주민과 곤명면민이 일체가 되어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산물 지조성사업에 기여하였기에 가능하였고 글로벌시대의 농산물 수입개방과 FTA협정, 농산물 시장의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전략으로 곤명농작목반(대표 이영천) 회원 94명이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단결된 의지로 이룬 노력의 결실이다.

고 농업인의 자조금 6억, 행정에서 8억을 투자하여 지난해까지 3년간 15만평에 농작단지 조성은 마무리하였지만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농업인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담고 당당하게 경쟁하여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 선택이었고 농업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원망과 좌절보다 새로운 도전과 개혁정신으로 현실을 극복하는 길을 선택한 곤명농작목반의 용기와 협동정신은 우리 농업인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또한 농업인단체가 주체가 된 농촌개발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산·학·관 협력사례로 우리 농업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다.

진양호 호반에 위치한 친환경농작단지는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로 인건비를 최소화 하여 저렴한 생산비와 300평당 2000kg 생산목표 달성, 해썬(haccp)기준의 최첨단가공설비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시

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며, 2007년은 '다자연'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하여 저렴한 가격과 최고의 품질로 차(茶) 매니아 마음을 사로잡는 틈새시장 개척의 원년이 될 것이다.

진양호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연꽃공원 조성 및 차 생산, 가공 등 체험 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2008년까지 88억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6거리(불거리, 배울거리, 놀거리, 쉴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제공하는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작단지로서 세계를 향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마스터플랜이 완성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2,246여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연매출 100억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우리시 특산품으로 농작업이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농작 「茶자연」

틈새시장 개척에 나선다.



우리 지역의 차(茶)재배는 신라시대부터 곤명 다술사 인근과 가야시대 정동 배방사지에 재배한 것으로 전래되고 있지만 먹거리 생산체제와 깨끗한 물은 우리 지역의 차(茶)재배가

확대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웰빙문화 확산으로 단순한 기호식품에서 건강식품으로 발전하고 있는 차 산업은 농촌노동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시설과 생산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곤명 친환경농작단지는 단순

우리고장의 문화재를 찾아서 (37)

구계서원 ②

37세 때인 명종 3년 7월에는 지리산을 등반하면서 여러 시(詩)를 남겼고, 38세 때 장손 호변(虎變)이 출생하였으며 그 이듬해 3월에 부상(父喪)을 당해 2년간 거상(居喪), 시묘하면서 가례대로 상례를 준수하였다. 3월 탈상 후 병을 얻어 6월에 공주목사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였다. 명종 7년 8월에 홍문관 응교(應敎)를 거쳐 9월에는 성군관 직강(直講)을 다시 사성(司成)에 승진되자 대사성(大司成)에 제수된 퇴계와 함께 동임(同任)하였다. 그해 10월에 청주목사로 부임, 동왕 11년 1월 건강을 이유로 사임할 때까지 3년간 재직하면서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왕으로 부터 포상을 받았는가 하면, 주민들은 선정비를 세웠다. 명종 11년에서 동왕 13년까지 관직을 사양하고 향거하면서 한때 부호군(副護軍)을 제수 받았으나 주로 고향 사천에서 살았고 명종 13년 4월에는 남명, 황강(黃江) 등과 함께 지리산을 등반하였는데 거기에 관한 행장은 남명의 유두류록(遊頭流錄)에 잘 표현되어 있다.

신을 왕래하면서 서악정사(西岳精舍) 건립과 향사, 건물의 액호 문제와 성리학 관련도서 간행 문제를 두고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고 또 교시와 자문을 맡아 처리하였다. 구암의 경주직에는 무열왕릉과 김유신묘를 비롯한 고대 능묘를 수축, 정비하고 선현봉사와 지방자제교육을 위한 서악정사 건립과 각종 도서 편간이 가장 특기할 치적이었다.

52세 때인 명종 18년 1월 경주부윤 임기를 마치고 귀향한 뒤 6월과 9월에 형 조참의와 호조참의를 거쳐 그해 11월 순천부사로 부임하였다. 55세 때인 명종 21년 4월 25일 모상(母喪)을 당할 때까지 2년여 재직하면서 김광필과 조위(曹偉)의 유적을 탐방하여 임정대(臨濟臺)를 수축하고 김광필의 유문과 사적을 수집, 정리하여 퇴계의 도움과 교시를 받아 『경현록(景賢錄)』을 편간하며 또 육전정사(玉川精舍)를 세워 퇴계에게 재효와 액자를 받고 선현봉사와 지방자제 교육을 장려하는 등 많은 치적을 남겼다.

55세 때 모상의 거상 중인 이듬해 명종이 승하하자 또 국왕을 위한 심상(心喪)을 복상하면서 모상과 왕상을 예법대로 거행한 데서 아들로서, 신하로서 충효 양친(兩全)의 도리를 잘 수행함으로써 조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58세 때인 선조(宣祖) 2년 탈상 및 명종의 심상을 마치고 향거하고 있을 때인 4월에 진주읍부옥(晉州淫婦獄) 사건이 발생하여 구암과 남명 및 남명문도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오해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은 마침내 남명이 구암과 절교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선조 2년 5월에 주택 가까이에 대관대(大觀臺)와 구암정사(龜巖精舍)를 준공하면서 거기에 관한 많은 시를 남겼는데 이때에 퇴계선생이 정사에 와서, 조용히 완상(玩賞)할 곳(靜觀)이 아니라 크게 내다 볼 곳(大觀)이라 하여 정관대를 대관대로, 구암정사를 대관대서재로 개칭

하기도 하였다. 그해 두 손자 호변과 곤명이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그해 9월 26일 선조로부터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되고 동왕 3년 9월 병조참의 등을 제수 받았으나 모두 사직하고 부임하지 않고 향거하다가 선조 4년 6월말에 발에 생긴 종양으로 7월에 접어들자 병세가 악화되어 7월 16일 별세하니 향년 60세였다. 구암이 별세한 뒤 선조는 예관(禮官)을 보내 치제(致祭)하였고 장례 때는 사우, 문생들의 제문과 만사(輓詞)가 많았다. 구암의 생애에 가장 관련이 많았던 퇴계와 남명도 선조 3년 12월에 퇴계가 죽고 그 이듬해 7월에 구암이 별세한 7개월만인 동왕 5년 2월에 남명이 죽었다. 즉 3년에 걸쳐 차례로 죽으면서 그 관계도 끝을 맺었지만 사후 그 문인들과 후손, 후학들에 의한 논란과 시비분토도 많았다.

선생의 문도(門徒)들이 가장(家藏)하고 있던 초고(草稿)들을 모아 3년간에 걸쳐 목판한 문집으로는 『구암집(龜巖集)』이 있고, 구암이 주도적으로 간행에 참여한 서적으로는 『황명이화명신언행록(皇明理學名臣言行錄)』, 『성리유편(性理遺編)』, 『학용장구지남(學庸章句指南)』, 『경현록(景賢錄)』 등이 있고, 이외에도 구암의 『행장』에 의하면 『공자통기(孔子通紀)』, 양시(楊時, 龜山)의 『이정수언(二程粹言)』, 주희(朱熹)의 『이정유서(二程遺書)』와 『외서(外書)』, 『연평문답(延平問答)』, 『주자시집(朱子詩集)』, 양렴(楊廉, 月湖)의 『이락원원소록(伊洛淵源續錄)』, 『황명명신언행록(皇明名臣言行錄)』, 『이학록(理學錄)』, 김이상(金履祥, 仁山)의 『연락풍아(濂洛風雅)』, 소옹(邵雍, 康節)의 『격양집(擊壤集)』, 범조우(范祖禹, 太史)의 『당감(唐鑑)』, 구준(丘濬, 瓊山)의 『가례의절(家禮儀節)』, 설선(薛道, 敬軒)의 『독서록(讀書錄)』, 호거인(胡居仁, 敬齋)의 『거업록(居業錄)』, 하흥(賀欽)의 『의무려집(醫無閤集)』 등이 있다.

구암에 대한 당대 또는 후대인의 논평 자료를 보면, 대체로 학문을 좋아하여 성리학에 조예가 깊으며 성리학자 설선 윤리인 충군(忠君), 효친(孝親)한 탁행(卓行)이 있으며 장기간 여러 고을 수령

으로서 선정을 베풀 순량리(循良吏)로 평가되고 있다. 18세기 이의현(李宜顯)은 『도곡잡설』에서 구암을 사천을 대표하는 인물로 거론했는가 하면 식산 이만부(李萬敷)는 동방제유의 한 학자로 배열하였다. 이와 같이 구암은 조선시대 사천을 대표한 인물로서 시문(詩文)과 성리학 및 행정적 능력을 갖춘 학자적 관료였다고 볼 수 있다.

16세기 중엽 퇴계와 남명이 경성파, 우도를 중심으로 학파를 형성하고 있을 때 구암은 퇴계, 남명을 다 같이 존경하는 스승 또는 선배로서 도의지교를 맺고 있었지만 출신 내지 거주지역상으로 남명과 근접한 관계였고, 퇴계와 남명처럼 문하에 많은 제자를 두어 한 학파를 형성하지도 못하고 남명의 그늘에 가려져 그 이름이 묻혀 있었다.

사천시에서는 향토인물의 선양이라는 취지에서 역대 명현과 명인들에 대한 각종 사업 중의 일환으로 사천문화원과 협조하여 세 번의 구암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 시민들도 구암 이정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구암사에 같이 배향하고 있는 김덕함 선생은 본관이 상주요 자는 경화(景和)이며 호는 성옹(醒翁)이고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1588년(선조 21) 진사가 되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내외직을 거쳐, 임진왜란 때에는 연안(延安)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조달하였으며, 1594년 군공청의 도청(都廳)이 되어 공을 세웠다. 그 뒤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광해군 때 군기시정(軍器寺正)을 지냈다. 1617년 이항복(李恒福)과 함께 인목대비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남해에 유배되고, 명천·온성(溫城)·사천 등지에 이배(移配)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 후 대사성·대사간을 역임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이 끝난 뒤 여주목사·춘천부사 등을 지내고, 1636년 청백리에 녹선되고 대사헌에 올랐다. 사천의 구계서원(龜溪書院), 온성의 충곡서원(忠谷書院), 안주의 청천사(淸川祠)에 배향되었다. 문집으로는 『성옹유고』가 있다.

/조영규·사천시청 세무과

봄이오는 길목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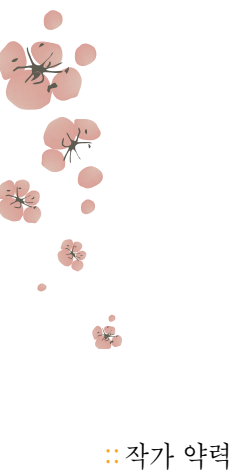
배채헌



갈등과 반목의 모래 산을 넘어
길고 긴 겨울은
목마른 이쉬운 남기고
메마른 골짜기를 건너 떠났다

흐르는 나뭇가지는
버들피리 부는 악동들을
손짓해 부르고
징검다리 게을런 외딴집 소녀는
매화꽃 봉오리 마냥
가슴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산허리 휘휘 돌아 언덕위의 목장에는
푸르른 잔디가 흥풍에 춤을 추고
긴세월 허허로운 무덤가에
고개 숙여 핀 함미꽃
수줍은 그대 모습 보니
내 마음도 수줍다



작가 약력
경남사천 출생
등단사인 부산문인협회 가톨릭문인협회 회원
동방의 나무나라 현대합관 목재상사 대표

실비집에서...



실비는 실제비용을 말한다. 실비집이 술집이고 보면 실비는 술값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안주는 무료라는 의미가 된다. 안주뿐 아니라 주인상을 차리기 위해 들인 손품 발품까지 모두 공짜라는 뜻이다. 살기가 빠듯했던 60~70년대 고달픈 일과를 마치고 하나 둘 모여든 선술집에서 막걸리에 친 김치 조각을 씹어가며 희로애락을 저울질했던 서민들의 애환이 지금의 실비집이 아니었던가. 크게 뜬 들어가는 안주가 없어도 술값만 받고 원가로 장사하는 인심 좋은 막다대미식 상술도 좋았고 손님 입장에선 그래도 공짜 안주를 위안삼아 주전자 하나 가득 나오는 막걸리에 흥겨웠으니 이래저래 실비집은 서민들 삶의 한 자락을 엮어왔던 집국의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한 셈이다.

그런 실비집이 지금은 대표적인 술집으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이곳 삼천포 사천은 그야말로 실비 전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2차로 가는 술집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비집에서 아예 진을 치는 양상이고 보면 그 위력을 실감하고도 남음이 있다. 무엇보다 그 옛날 선술집의 쉬어빠진 김치로 대변되는 무료 안주의 대 변신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지리적으로 항구를 끼고 있다보니 안주는 그 다양성과 질적 양적인 면에서 술값을 무색케 한다. 물론 실비집마다 특산물과 메뉴의 면모가 약간의 특색을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인장의 손맛과 손님들의 입맛이 빚어낸 독창적 작품으로서 애교로 봐주어도 될 설이다.

순님의 술 진도에 맞추어 안주를 내 주는 집이 있는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왕창 수라상을 차려주는 후덕한 주인장도 있다. 하나 그 면면을 보자면 싱싱한 회와 새조개, 전복 등 조개류와 나지 주꾸미 문어에 돼지, 쇠고기 등 육산품을 섞어 조화를 이루고 살 오른 생선에 왕소금 뿌려 짭짤하게 구워내고 한잔두잔 취기가 오르던 이에 뒤질새라 얼큰한 해장국물까지 대접하니 어느 객인들 술을 마다하리오. 과하면 독이 되는 게 술이지만 술도

열차가 있다면 이만한 성찬에 독이 되다가도 약이 되어야 할 터. 과연 실비의 진수가 아닐 수 없다. 술집은 안주 못지 않게 분위기도 관건이다. 한 잔 술에 하루를 갈무리하고 얹히고 설킨 일상의 실타래도 얼얼 놓는 곳이 실비집이다. 얼얼만 돌리던 다 험남이고 아우고 친구다. 안부가 오가고 반가움에 소주잔 건네는 그들의 얼굴이 바로 세상을 엮어가는 모자이크의 요소들이다. 대 여섯 평 남짓 비좁은 공간은 그래서 하늘보다 더 넓은 서민들의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다. 비워지고 쌓여가는 소주병 만큼이나 살아온 그리고 살아갈 생의 희로애락들도 시원하게 풀려갈 것이다.

무엇이든 화려한 탈이 나는 법이다. 나는 술 예찬론자도 아니고 실비집 홍보대사는 더더욱 아니다. 그저 우리네 서민들의 일상이 털털이 너울너울 희망차치기를 바랄 뿐이다. 그 희망이란 게 스스로를 특산물과 메뉴의 면모가 약간의 특색을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인장의 손맛과 손님들의 입맛이 빚어낸 독창적 작품으로서 애교로 봐주어도 될 설이다.

오늘도 실비집에 들어선다. 벌써부터 만원이다. 짹짹 찜질하게 안주를 차려주는 주인장의 얼얼한 술잔을 기울이는 이웃들의 하루가 그대로 투영된다. 북적거림이 더해진다. 실비집 맛도 사람들의 사는 맛도 더불어 진해진다. 술은 돈 주고 마시고 안주는 공짜로 행여 먹고 그래서 그들은 사는 맛을 텅으로 얻어간다. 실비집이 우리네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용호·사천시 선구동

삼천포대교에서 본 해맞이 축제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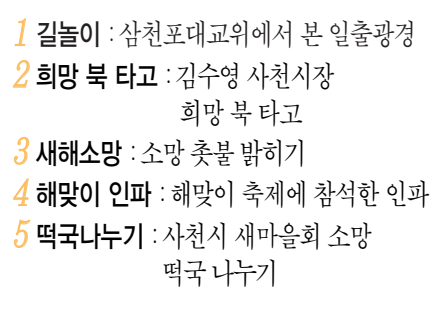
1 길놀이 : 삼천포대교에서 본 일출광경



2 희망 북 타고 : 김수영 사천시장 희망 북타고



3 새해소망 : 소망 촛불 밝히기



4 해맞이 인파 : 해맞이 축제에 참석한 인파



5 떡국 나누기 : 사천시 새마을회 소망 떡국 나누기